

코로나19를 통해 본 미국의 인종별 격차 문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말, 한 흑인 젊은이의 죽음으로 촉발된 흑인 인권 운동은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2012년 흑인 소년의 죽음을 통해 나왔던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현재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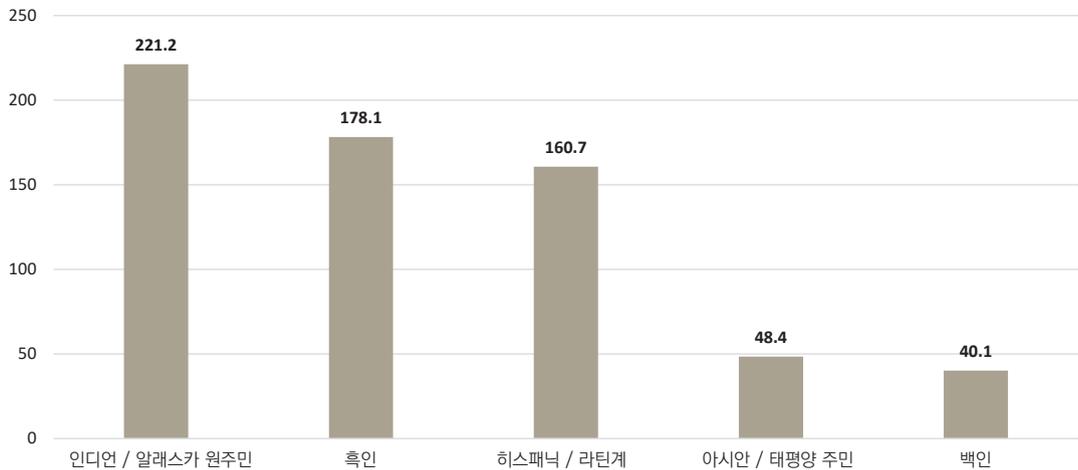
팬데믹 국면에서 흑인 인권 운동은 흑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던져준다. 한 젊은이의 죽음이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사회 구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팬데믹 과정에서 흑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은 백인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아래에서는 팬데믹하에서 인종별로 나타난 건강과 노동시장의 격차 및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팬데믹에서 드러난 인종별 건강 격차

[그림 1]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그림 1] 인종별 10만 명당 코로나19 입원율(2020년 3월 ~ 6월 13일)

(단위 : 명(인구 10만 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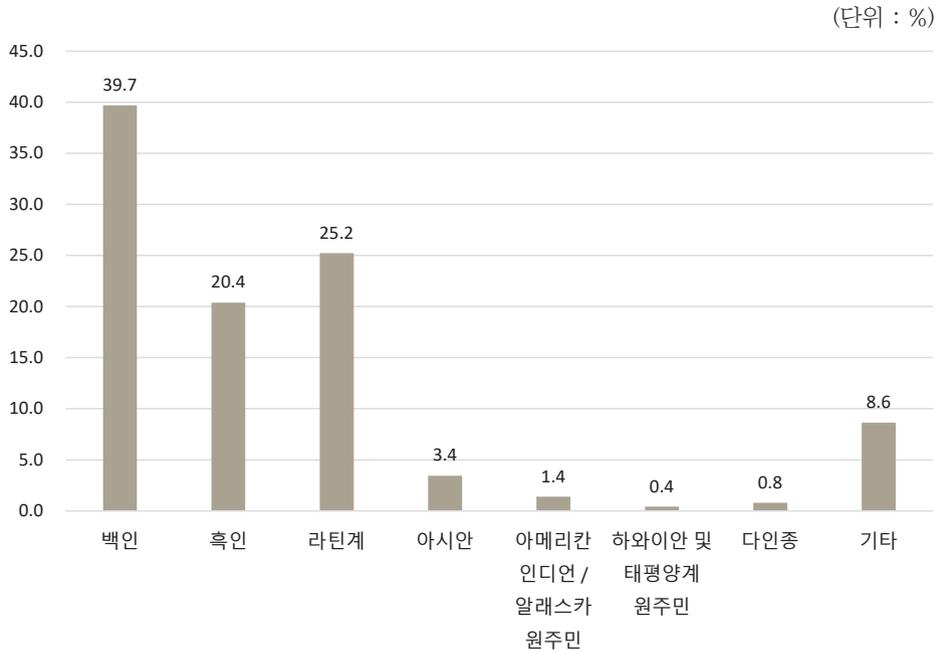
자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연령조정된 수치임.

서 공식 발표한 인종별 코로나19 관련 입원율을 나타내고 있다.¹⁾ 이 자료에 따르면, 백인에 비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히스패닉계 환자 입원율이 4~5배가량 높았다. 양성 환자를 대부분 병원에 수용하는 한국과 달리 중증 환자 위주로 수용하는 미국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이 통계는 유색 인종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세심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 상황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아시아인의 경우, 백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미국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타격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자의 인종별 분포를 보도록 하자. 현재 주별로 인종별 바이러스 확진 및 사망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아직 전국 단위의 자료는 모든 통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어, 그림 2의 통계는 총 확진자 수의 절반가량을 미분류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료 수집을 통해 통계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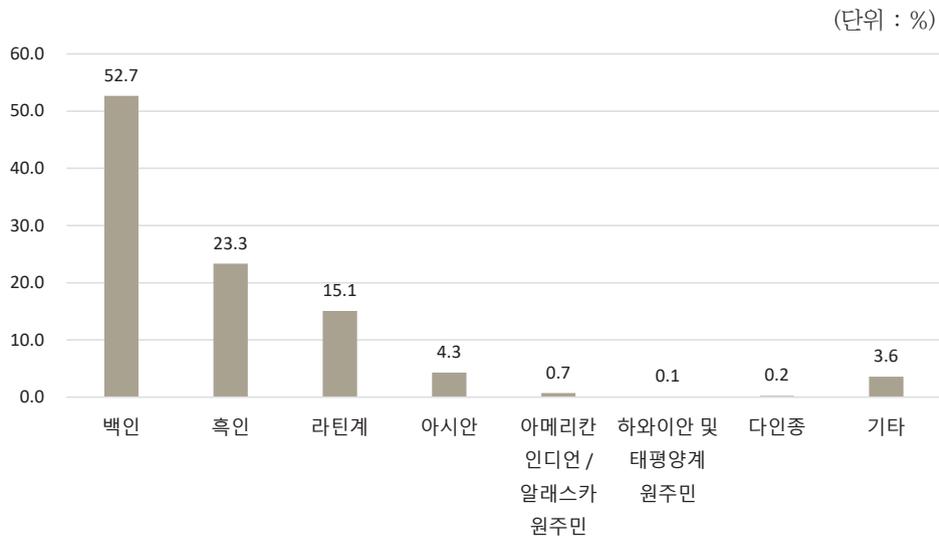
1)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racial-ethnic-minorities.html>

[그림 2] 코로나19 확진자의 인종별 분포(2020년 7월 1일까지의 통계)



자료: The COVID Tracking Project.

[그림 3] 코로나19 사망자의 인종별 분포(2020년 7월 1일까지의 통계)



자료: The COVID Tracking Project.

집된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은 2020년 7월 1일 기준, 확진 및 사망자의 인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확진(39.7%)이나 사망(52.7%) 모두 백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²⁾ 미국 인구의 75.5%가 자신을 백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비히스패닉계 순수 백인(Non-Hispanic White alone)으로 범위를 좁혀도 61.1%가 백인으로 정의했을 만큼, 미국 사회의 다수는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자신을 흑인으로 정의한 비율은 12.7%, 히스패닉계 혹은 라티노라 응답한 비율은 17.8% 정도이다. 이러한 인구구성을 고려하면, [그림 2]와 [그림 3]은 백인에 비해 다른 유색인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령 범주를 포함한 통계를 보도록 하자.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가 특히 고령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 CDC 자료를 정리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그림 4 참조).³⁾ 이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 걸쳐 백인보다 흑인 및 히스패닉의 사망률이 더 높지만,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인종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흑인 고령층이 코로나19에 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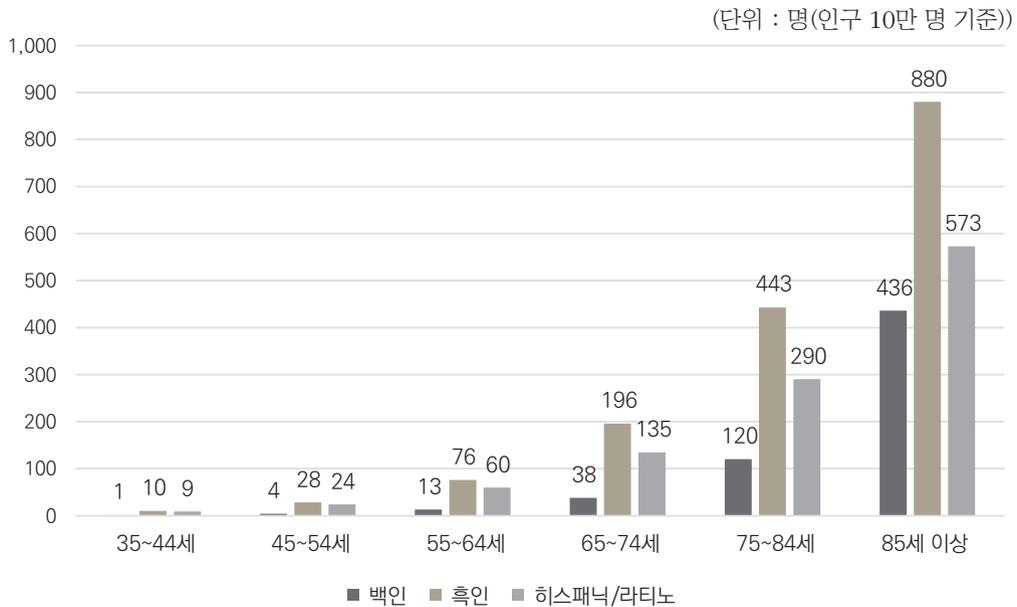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인종별 건강 격차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병리학자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박사는 그동안 이 문제가 흑인 커뮤니티에 만연해 왔었다고 지적한다.⁴⁾ 즉, 백인에 비해 흑인들의 질병 비율이 높은 데다, 소득 및 보험 혜택 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이러한 건강 격차가 고착화되어 온 것이다.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많이 분포하는 흑인들이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위협에 더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건강 격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2) <https://data.census.gov/cedsci/table?id=ACS%205-Year%20Estimates%20Data%20Profiles&tid=DP05&tid=ACSDP5Y2018.DP05>

3)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20/06/16/race-gaps-in-covid-19-deaths-are-even-bigger-than-they-appear/>

4) <https://thehill.com/policy/healthcare/496190-opening-may-put-black-workers-at-disproportionate-risk>

[그림 4] 인종/연령별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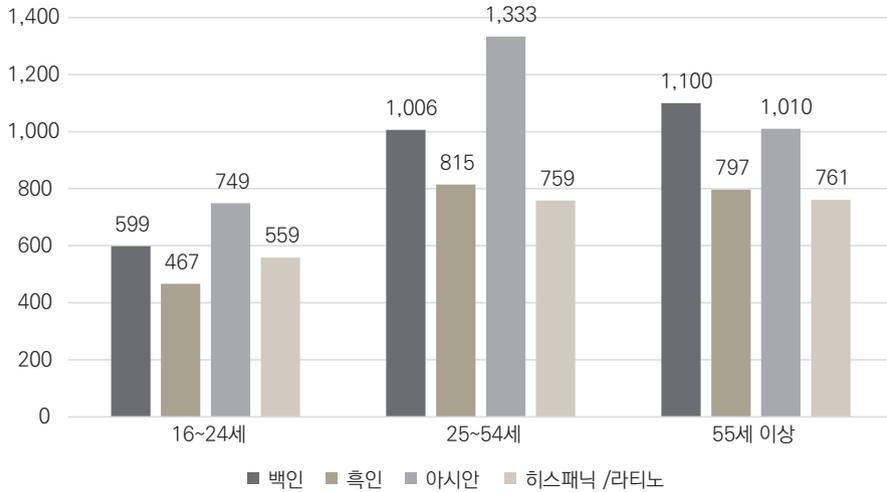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 노동시장에서의 인종별 격차

노동시장에서도 인종 불평등은 이미 오래된 미국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림 5]는 2020년 1분기(1~3월) 기준 풀타임 노동자들의 인종별 소득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백인에 비해 흑인 및 히스패닉 계열 노동자들의 소득이 전 연령층에 걸쳐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이 격차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백인 노동자의 소득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599달러 → 1,006달러 → 1,100달러), 흑인 및 히스패닉 노동자들은 고령으로 갈수록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흑인: 467달러 → 815달러 → 797달러; 히스패닉 : 559달러 → 759달러 → 761달러). 여기서 특이한 점은 풀타임 노동자로 한정해 볼 때, 아시아인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흑인 및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하위계층으로 고착화되어 온 반면,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으로서 높은 소득 수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풀타임 노동자들의 인종별 주당 중위 소득(2020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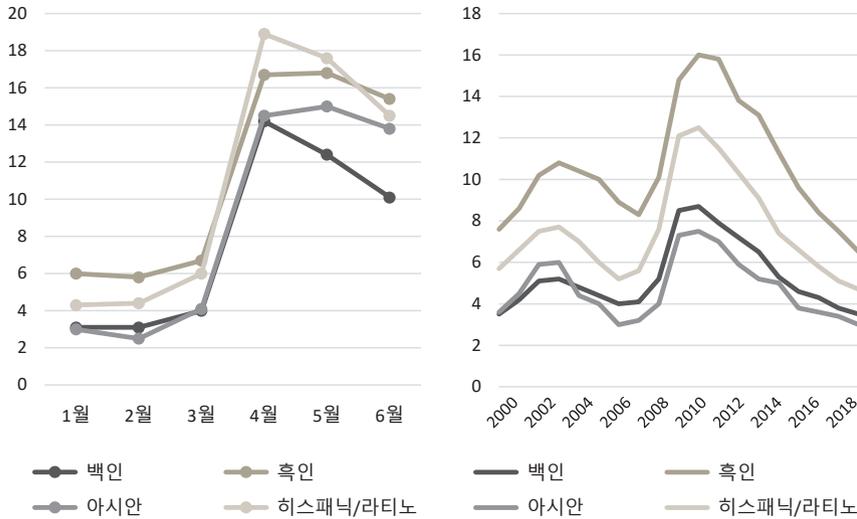
(단위 : 달러)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계절조정되지 않은 수치임).

[그림 6] 인종별 미국 실업률 추이(2000~2018년(좌), 2020년 1~6월(우))

(단위 : %)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표 1> 인종별 종사 직종 분포(2019년)

(단위 : %)

	백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관리 및 전문직	41.4	31.9	55.0	23.3
서비스직	15.9	23.8	15.8	24.2
판매 및 사무직	21.3	22.3	17.0	20.6
자원, 건설 및 유지보수직	10.1	5.7	3.1	16.4
생산 및 운송직	11.3	16.2	9.1	15.4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렇다면, 인종별 직업 안정성은 어떠할까. 미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래 백인이나 아시아인들과 비교해 흑인과 히스패닉이 두 배가량 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해 왔다.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기간에는 모든 인종에서 가파른 실업률 상승 경향을 보였다. 이 추이는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3~4월을 기점으로 전 인종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백인과 히스패닉 실업률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흑인과 아시아계 실업률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 노동자들이 평상시 높은 실업률을 보임과 동시에 금융위기, 팬데믹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실업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인종별 격차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차이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표 1>을 보면, 백인(41.4%)과 아시아인(55.0%) 상당수가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반면 서비스직과 판매 및 사무직, 그리고 생산 및 운송직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계통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 광범위한 분류만으로 인종별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래 기사들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 노동자들이 위 표의 서비스, 판매, 운송 등의 직종 중 대면 업무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BS 뉴스에 따르면,⁵⁾ 흑인 노동자들은 백인에 비해 헬스케어, 대중교통 운송, 식품 소매업 등 일종의 최전선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로서, 봉쇄 기

5) CBS News(2020.6.16), "As states reopen, black workers are at greater risk for COVID-19", Retrieved on July 1st, 2020. <https://www.cbsnews.com/news/black-workers-lives-essential-frontline-jobs-risk-coronavirus-reopening/>

간에도 출근하며 질병 위험에 노출되었고, 백인에 비해 저임금 및 낮은 복지를 감수해야만 했다. 저소득과 외벌이 등의 상황은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가디언(The Guardian) 역시 흑인 노동자들의 업종 및 업무 특성들로 인해 이들이 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⁶⁾ 이 기사는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흑인 노동자(37.7%)들이 백인 노동자(26.9%)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필수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 및 병원 관련 산업의 경우 백인보다 40~50% 더 많은 흑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를 통해 드러나듯, 유색 인종이 겪는 불평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작업장 전체에 걸쳐 뿌리깊게 박혀있다. 관련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그중 일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흑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고, 실제 흑인 노동자들이 이 편견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그 사례를 예외로 둘 뿐 편견의 시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또다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비백인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부당대우(mistreatment)를 더 인지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이렇듯 사회 저변에 깔린 인종차별 문제는 구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수인종 구직자들은 고용주의 다양성 지향 정도를 판단하여 본인의 인종을 드러내거나 숨기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⁹⁾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구직 과정에서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많이 지향한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인종을 드러내더라도, 실제로 고용 단계에서 인종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6) The Guardian(2020.4.16), "The coronavirus burden is falling heavily on black Americans. Why?", Retrieved on July 1st, 202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apr/16/black-workers-coronavirus-covid-19>

7) Pager, D., & Karafin, D.(2009), "Bayesian Bigot? Statistical Discrimination, Stereotypes, and Employer Decision Making",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1(1), pp.70~93.

8) McCord, M.A., Joseph, D.L., Dhanani, L.Y., & Beus, J.M.(2018), "A Meta-analysis of Sex and Race Differences in Perceived Workplace Mistreat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3(2), pp.137~163.

9) Kang, S.K., DeCelles, K.A., Tilcsik, A., & Jun, S.(2016), "Whitened Resumes: Race and Self-Presentation in the Labor Marke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1(3), pp.469~502.

들은 미국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얼마나 인종차별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소수인종 노동자들(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이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경제 재개 계획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 일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경제 재개 방침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저임금, 안전 장비 및 유급휴가 미비 등 열악한 근로조건하에 놓여있는 소수인종 노동자들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맺음말 : 흑인 인권 운동과 팬데믹 경험이 주는 메시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5월 25일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시민들이 인종차별 문제에 공감하며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¹⁰⁾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관계 맺기가 어려운 가운데,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지지 확산은 향후 폭넓은 연대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암시한다.

물론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질병의 위협은 많은 이들의 생활 영역을 집 안에 한정 짓게끔 제한하였다. 당장 여러 행사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 행사에 비해 관계 맺기의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였고 단체 행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일각에서는 봉쇄 폐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 달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역시 여러 부작용을 겪었다. 때로는 폭동으로 불릴 만큼 약탈이 자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대선 국면에서 ‘인종차별 반대’나 ‘마스크 착용’ 등의 구호 및 지침이 정치적 이슈로 논쟁화되기도 했다. 여러 불

10) The New York Times(2020.6.5), “Why Most Americans Support the Protests”, Retrieved on June 29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6/05/us/politics/polling-george-floyd-protests-racism.html>

확실성이 결합한 상황에서의 시위는 많은 불편함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연대의 메시지를 주었다. 경찰관들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인종차별 반대에 동의하는 취지로 한쪽 무릎을 꿇었고, 시위는 흑인들뿐 아니라 여러 인종(특히 백인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노조들 역시 적극적으로 연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노동총동맹 산별노조회의(AFL-CIO)의 리처드 트럼카(Richard Trumka) 위원장은 팬데믹 국면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일이 분리될 수 없으며,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¹⁾ 작업장 안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의 표시로 ‘Black Lives Matter’ 구호가 적힌 셔츠를 입고 있다.

팬데믹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작업장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거나 관련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이 주는 경제구조의 불안은 쉬운 해고나 유연화 등의 구호가 정당화될 조건을 제공한다.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와 파편화는 노동 조직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분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연대의 메시지는 흑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동 동기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KL**

11) <https://aflcio.org/speeches/trumka-black-lives-matter>